

<번역 논문>

성경으로 말미암아 당황스러움이 생길 때¹⁾ -성경 번역자의 역할에 대하여-

칼 그로스(Carl Gross)*

김희석**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점이다. 불편하게 하거나, 얼굴이 붉어지게 하거나, 눈길을 낮춰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다. 사실, 당신을 진정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나에게서는 전혀 당황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당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차이는 문화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성경으로 인한 당황스러움”이라는 이 글의 제목으로 인해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신앙의 근본인 성경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성경을 펴서 읽게 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심하면 우리들 중의 어떤 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을 곧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그러한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성경 내용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맹세하기(예: 신성모독, 좋지 못한 언어 표현들)
2. 인간의 생리현상을 언급하는 내용
3. 인간의 성기, 유방, 성(性)에 관계된 내용들(예: 창녀)

* 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컨설턴트.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 구약학.

1) C. Gross, “Embarrassed by the Bible: What’s a Translator to Do?”, *The Bible Translator* 63:2 (April 2012), 87-94.

4. 할례에 관계된 내용들
5. “나쁜” 신학(“bad” theology),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반(反)하는 내용들
6. 죽음 및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도록 하라.

당황스러움에 대한 반응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완곡어법(euphemism)이다. 완곡어법이란, 당황스러운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다. 완곡어법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당황스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예의 바르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나는 이를 텍스트의 “위생화 하는” 것, 즉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예를 들면, “죽다(die)”를 “지나가 버리다(pass away)”로 표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함께 잡자다(sleep with)” 혹은 히브리어 완곡어법인 “알다(know-KJV)”²⁾가 “성관계를 가지다”를 의미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성경에서 “발(feet)”은 때로는 인간의 성기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으로 사용되고, “발을 가리다”는 표현은 “배변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완곡어법을 사용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보다 쉬워지는데, 독자들이 코웃음치거나 겁에 질려 숨을 들이키거나 하는 일이 없어져서, 읽을 때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 번역의 과정 속에서도, 원래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사울 왕이 동굴에서 “발을 가리웠다”(삼상 24:3)라는 표현을, 그가 너무 지쳐서 잠을 자고 싶었지만 바깥 사막의 열기에 비해 동굴 안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담요로 그의 발을 덮은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 완곡어법은 그 원래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기에 어린 시절의 내게 있어서 그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번역자가 성경의 완곡어법에 대해 너무 잘 알아서 그 의미를 확실히 드러내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면, 그 드러난 의미가 명백해져서, 오히려 성경 저자가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그 원래의 의미가 드러나는 정도를 낮추려고 한 의도에 반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너무 과한 번역(over-translate)이나 부족한 번역(under-translate) 모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장 좋은 번역 방법은 성경이 완곡어법을

2) KJV나 다른 번역본들에서 이런 완곡어법이 사용되었다.

사용한 부분에서는 우리도 완곡어법을 사용하고, 성경이 그 의미를 명백히 드러내는 곳에서는 본문의 명백한 정도에 맞춰 번역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전달에 있어서의 “소음”

다른 논의에 앞서,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의 “소음”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 보자. 이 용어 자체는 전자파 혹은 그와 유사한 파동(waves)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분야들에서 소음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신호와는 구별되는 배경의 파동(background radiation)을 가리키는데, 의미전달 신호를 오히려 방해하거나 소멸시키기도 한다. 즉 인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소음”이란 메시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의미의 명료성을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듣는 자의 주의를 흩어서 메시지가 충분하고 명확하게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민감하고 당황스러운 주제들은 이런 소음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성(性), 육신의 어떤 부분들, 생리 현상 같은 주제들은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함의들을 발생시킨다. 이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독자나 청자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기에, 우리는 이런 주제들을 소음이라 부르게 된다.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소음을 줄이더라도, 그 주제의 본질적인 소음은 어느 정도 남게 마련이다.

대개의 문화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완곡어법을 사용하는데, 그렇기에 그 주제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침묵 즉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모든 문화권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소음의 정도는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문화에서도 계층에 따라 다르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문화는 성이나 노출에 대하여 멜라네시아나 폴리네시아 원주민 문화보다 더 관용적인데, 영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서구문화 중에서도 네덜란드 문화가 가장 관용적이다. 반면, 멜라네시아인들에게 여인이 종아리 앞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다. 어떤 문화에서 할례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대화 주제인 반면, 다른 문화에서 할례는 금기시되는 주제이다. 또한 한 문화권 안에서도 성, 계층, 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견된다. 호주에서 직업을 가진 젊은 남성들에게 신성모독적인 표현이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어권 문화에서는, 병원처럼 당황스러움을 훨씬 덜 유발하는 상황에서조차 전문용어들을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표현해 왔다. 예를 들면 flatulence, passing water, stools, coitus 등이 있다.³⁾ 이러

3) 역자 주: flatulence는 방귀를 뜻하고, passing water는 소변을, stools는 대변을, coitus는 성교를

한 완곡어법들은 보다 세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영성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를 생각해 볼 때, 완곡어법이 많이 쓰인다는 사실은 독자들이 당황스러워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이라 생각된다.

소음은 이러한 주제들이 제시될 때마다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주제들이 명백히 쓰일 때나 완곡어법에 의해 완화되었을 때에나 모두 생겨난다. 심지어 당황스러움의 수준이 매우 낮을 때에도 소음은 생겨날 수 있다. 당황스러운 주제를 다루는 표현이 아무리 순수하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소음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로부터 독자의 주의를 빼앗아가기만 하면 소음은 발생된다. 신약성경에서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 좋은 예이다. 스테반은 사도행전 7:51에서 청중들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핵심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논의는 에스겔 16장과 23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일으킨다. 어떤 면에서는 아가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본문들에 나타나는 명백한 성적 묘사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성적인 뉘앙스를 제거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문의 저자가 그런 종류의 뉘앙스를 본문 가운데 의도해 두었기 때문이다. 에스겔은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의 예언들을 성적 용어를 통해 표현했는데, 이는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어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들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인 단어를 통해 표현할 수도 있었던 내용을 성적인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방법이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비록 내가 에스겔의 선택이 갖는 함의를 모두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그가 선명하게 그려낸 천박한 묘사를 통해 감정적 효과를 확실히 불러 일으키는 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분명히 믿는다. 만약 우리가 그 감정적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메시지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명백한 성적 뉘앙스는 에스겔 본문에 있어서는 소음이 아니라 메시지의 일부이다.

내가 이미 제시한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에서는 서로 다른 수준의 당황스러움, 다른 수준의 금기가 존재한다. 즉 다른 문화들은 당황스러운 주제에 대

뜻하는 말인데, 노골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완곡어법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에서는 수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충격을 받는다. 그렇기에 한 문화에서 명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완곡어법을 통해 표현된다. 예를 들면, 할례, 유방, 성기 등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토론될 수 있는 문화에서는 그 원래의 표현들이 유지되지만, 이 주제들이 당황스러움을 야기시키거나 금기시되는 문화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각 문화들은 그 주제들에 대한 서로 다른 최대 관용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접근법에 직면하여, 의미 중심의 번역을 해내기 위해 우리는 독자들을 당황시킬 가능성이 있는 원래의 단어/표현들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런 표현들을 제거하는 방법 사이에서 적절한 길을 모색해내야 한다. 성경 본문이 당시의 독자들에게서 얻어냈던 반응을 현대의 독자 즉 그 번역본의 독자에게서 얻어내는 번역이 좋은 번역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성경 당시의 독자에게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던 표현들(예를 들면 신약에 등장하는 “할례”)이 현대의 독자에게 가능한 한 당황스럽지 않도록 번역해야 한다. 그 어떤 당황스러움도 소음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에스겔이 사용한 성적 누앙스의 경우처럼, 성경 본문이 독자에게 충격을 주려고 의도한 경우에는 번역본의 독자에게 그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황스러움은 소음이 아니다. 좋은 번역이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번역이다.

“충격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

당황스러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메시지가 독자의 반응 정도에 달려 있는 본문의 경우에는, 본문이 독자에게 충격을 주려고 의도하고 있기에 충격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이다. 또한, 이야기의 생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의 천박함에 메시지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사사기 3장의 에훗 이야기가 좋은 예인데, 화장실에서 풍기는 냄새가 이야기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우이다. 또한 현대 독자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지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당대의 독자들에게 이 용어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었다(예를 들자면, 신약의 “할례”). 그러므로 번역자/해석자는 번역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반응들(당황스러움, 충격, 수치, 불안함)의 수준을 측정하여 번역의 정확함과 번역의 적절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균형 유지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청중의 “충격 가능성”에 의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충격 가능성이란 청

증들에게 충격을 주는 표현들로 인해 청중들이 갖게 되는 당황스러움의 깊이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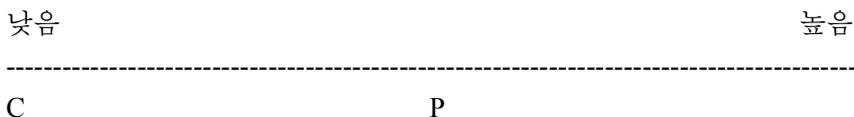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원래 표현에 대한 청중들의 충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치 테스트(shame test)”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 당황스러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성경 본문의 “충격의 정도”를 확인하라. 그리고 그 정도를 충격 가능성 기록표에 표기하라.
2. 그 본문이 청중의 문화 가운데 갖게 될 “충격의 정도”를 확인하라. 그리고 그 정도를 충격 가능성 기록표에 표기하라.
3. 위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청중의 충격 정도에 표기된 지점을 성경본문의 충격 정도에 표기된 지점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길을 찾아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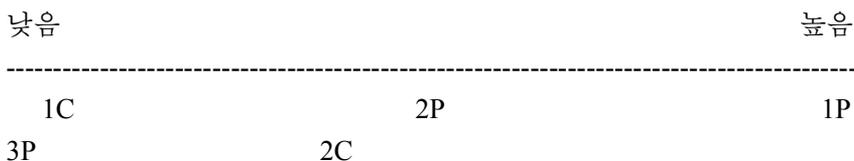
이에 대한 실례가 다음 표에 예시되어 있다.

그림 1: 수치 테스트

기록표(A) - 성경 본문의 충격 가능성



기록표(B) - 청중의 충격 가능성



토의

1. 기록표 A는 충격 정도(혹은 수치 정도)가 어떻게 성경 용어들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실례로서 할례(C: circumcision)와 매춘(P: prostitution)의 경

우를 들었다. (이 주제들은 오로지 예시를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 위 기록표에 표기된 위치들이 공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C와 P의 위치를 보면, 할레라는 용어는 충격을 주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에 반해, 매춘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충격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록표 B는 이런 두 가지 주제가 문화 1과 문화 2에서 어떤 충격의 정도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2. 문화 1의 경우, 할레의 충격 정도(1C)는 매우 미미하여, 성경 맥락에서의 충격 정도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므로 문화 1의 경우에는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원리가 문화 2의 맥락에서의 매춘(2P)를 다룰 때에 적용될 수 있다. 성경과 문화 2에서 매춘이라는 주제는 동일하게 중간 정도의 충격/수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3. 매춘은 문화 1에서는 금기시 되는 주제이며(1P), 할레는 문화 2에서 중간 정도의 당황스러움을 야기시키는 주제이다(2C). 두 문화 모두 이 주제들에 있어서 성경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들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본문이 의도한 것보다 더 강한 역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는 소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 1에서는 매춘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아예 제거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충격의 수준을 완전히 제거하여 기록표 A에 표기된 P 지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성경이 의도한 매춘에 대한 충격성을 과도하게 제거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반대로, 문화 2의 경우에는 할레에 대한 충격 의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할레의 언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황스러움은 성경에 전혀 의도되어 있지 않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4. 만약 매춘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는 문화가 있다면(3P), 우리는 매춘을 언급할 때 그 언급이 그 문화에 주게 될 충격 수준을 상승시키는 번역을 함으로써, 기록표 A에 표기된 P 지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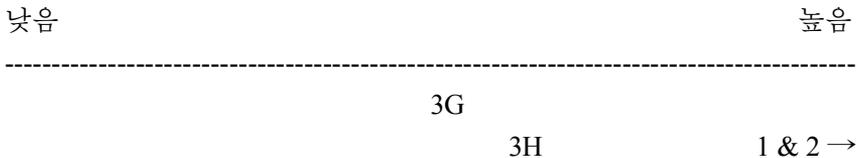
위의 테스트는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에스겔 본문 번역에 유용할 것인데, 다만 그 적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림 1의 수치 테스트는 번역자가 어려운 본문 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역반응의 양을 줄이도록 도와준다. 에스겔에서, 우리는 반응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충격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림 2에서 나는 에스겔서의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해 보았다. 그 주제는 머리털을 드러냄(public hair: 겔 16:7)과 성기(genitalia: 겔 16:26, 36; 23:20)이다.

그림 2: 에스겔서 본문에서의 수치 테스트

기록표(A) - 에스겔 본문의 충격 가능성



기록표(B) - 청중의 충격 가능성



토의

1. 기록표 A는 에스겔서에서조차 머리털을 드러내는 것(H)과 성기(G)라는 주제가 매우 높은 충격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본문의 이런 주제 언급은 독자에게 충격을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주제들이 기록표에 표기된 지점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표기한 것이 번역 문제를 위한 실례로서는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록표 B를 보면, 문화 1과 문화 2에서 모두 위의 두 주제가 금기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개방적인 문화3에서는 머리털을 드러내는 것은 히브리 문화와 같은 정도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성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보다 좀 더 편안하게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세 문화권 모두의 상황에서 위의 두 주제는 높은 소음의 정도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이 본문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소음과 충격의 정도를 완전히 없애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3. 그러나, 내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에스겔에게 있어 소위 이런 소음은 사실상 소음이 아니다. 충격 정도가 메시지 자체의 핵심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위의 수치테스트는,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던 충격의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표현들이 번역자들의 문화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거하고 싶은 경우에도 번역자들이 적절한 충격의 정도를 번역 속에 반영해 내도록 이끌어준

다. 서로 다른 문화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중에게 알맞은 수준의 충격을 전달하는 일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 26:16의 “큰 성기”라는 표현(문자적으로 “육체의 거대함”이다. 이는 완곡어법이 아니다.)의 번역 범위는 “잘 매달려 있는”이라는 조금은 영성한 표현으로부터 “성욕이 강한” 혹은 “언제든 성행위를 갈망하는”이라는 강한 표현에까지 이르게 된다. 어떤 번역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번역된 표현이 기록표 B의 어느 지점에 해당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 번역된 표현이 기록표 A에 표기된 G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면, 그 번역은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결론

수치 테스트의 가치는 성경맥락을 표현한 기록표 A와 청중문화를 표현한 기록표 B 선상에 분류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기했는가에 달려 있다. 기록표 A는 2000-3000년 전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에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표를 통해 성경의 난해한 단어들/주제들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는지를 알려주어 성경번역자들과 해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작업이기에, 학자들이 이 일을 꼭 수행해 내야 한다.

기록표 B의 경우에 보편적인 기록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들 간에, 심지어는 매우 비슷한 문화들 사이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번역자들은 각각의 문화에 따라 기록표 B를 작성해 나가야 한다.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나, 우리가 적절한 번역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신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부록>

당황스러움을 유발시키는 실례들

맹세: 삼상 20:30

변기의 기능: 배변(삿 3:22, 24; 삼상 24:3; 왕상 18:27); 소변(겔 7:17; 삼상 25:22, 34; 왕상 14:10; 16:11; 21:21; 왕하 9:8)

성기, 유방, 성: 아가서(여러 곳에 나타난다, 특별히 1:13을 보라), 사 7:20 (“발”의 완곡어법적 사용), 창 31:35(여성의 생리현상); 겔 16:6-7(머

리털을 드러냄, 유방, 나체); 출산과 젖먹이는 행위(살전 5:3; 눅 11:27).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은 에스겔 16장과 23장에서 성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이다(16:7; 23:3, 8, 21, 34 [유방]; 16:7, 8, 22, 36, 37, 39; 23:10, 18, 26, 29 [벌거벗음]; 16:15, 16, 17, 20, 22,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41; 23:3, 5, 7, 8, 11, 14, 18, 19, 27, 29, 30, 35, 43, 44 [매춘과 매춘하는 여인들]; 16:33, 36, 37, 39; 23:5, 9, 22 [불법적 사랑]; 16:43, 58, 23:21, 27, 29, 35, 44, 48, 49 [음란함]; 16:26, 36; 23:20 [성기]).

할례: 할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데, 신약에만 75회가 나타난다. 내가 저술한 다음 소논문을 참조하라: “신약의 할례: 당황스러움 없이 번역하기(Circumcision in the New Testament: Translating without Embarrassment),” *The Bible Translator* 50:4 (1999): 422-427. 수 5:3(할례산), 삼상 18:25-27(사울이 다윗에게 100개의 블레셋인의 포피를 미갈과의 결혼 선물로 요구함)의 경우와도 비교하라.

“나쁜” 신학: 창 44:5-14(죽장 요셉이 마술을 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의 “나쁜” 신학의 다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사무엘상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춘 것을 번역할 때, 자신들이 복음주의자여서 춤을 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로 위로 뛰었다(jumping up and down)”로 번역한 경우.

“Baptise”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물에 잠기다”로 번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물을 뿌리다”로 번역해야 하는가?

성만찬 제정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의 문제.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에 대한 상징으로 보아 “이는 내 살을 대표한다(This represents my body)” 혹은 “이는 내 피와 같다(This is like my blood)”로 번역할 가능성은 천주교나 동방 정교, 루터교 배경을 가진 번역자보다는 자유교회 배경의 번역자가 훨씬 높다.

사 7:14에서 “동정녀”라는 단어로 번역할 것인지 “어린 여자”로 번역할 것인지의 문제.

죽음 및 죽어가는 과정: 많은 서구권 문화에서, 죽음/죽음의 과정은 “pass away(사라져가다)”나 “deceased(작고한)” 등의 완곡어법으로 표현된다.